## 42 년 망치 하나로 강을 바꾸다

# 스토우 야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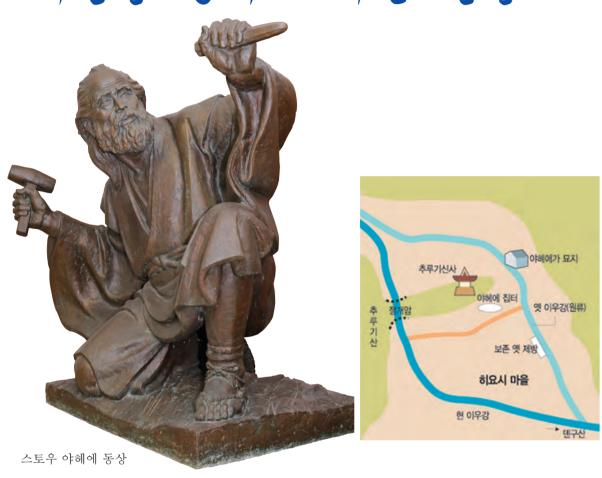
4 대강 개발 사업에 8 개 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는 사업 중단을 촉구한 반면 보수 성향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고질적 물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이유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일보'이웃'은 17~18세기 일본 치산·치수 영웅 세 사람의 개발 사례를 통해 케이스 스터디 (Case study) 를 해봤다.

인력만으로 대자연의 흐름을 바꾼 역사(役事)는 200~300년이 지난 지금도 생태의 순환을 반복하며 그 공과를 후대가 안으며 살고 있다.



①전 재산 털어 간척사업 - 오오카지 시치베에 ●죽음으로 8km 운하 뚫다-기요하라 타헤에 ⓑ 42년 망치 히나로 강을 바꾸다-스토우 야헤에

## '자연을 상대로 나쁜 일을 도모하여 해가 되면 그것이 재앙이다



이즈모 ( 일본 )= 글 전정희 기자・ 사진 윤여홍 선임기자

모하여 해가 되면 그것이 재앙이다 ."

스토우 야헤에 (1651 ~ 1752). 42 년 동안 가 휩쓸리는 농민 현실을 어떻게든 극복하려 12.7m의 좁은 폭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농토 망치와 끌만으로 산을 절개해 강의 흐름을 바 는 뜻을 품고 있었어요. 끌과 망치로 산을 뚫 가 2.5 배나 늘어났다고 기뻐했던 농민은 용 주민은 동참 외면 관청은 지원 거절 꿔 홍수 피해로부터 농민을 구한 일본 마쓰에 고 말겠다는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었겠어요. 신의 재앙이라며 동요했다. 이후에도 세 차 **창고 쌀 모두 처분해 인부 임금으로** 번의 관리. 그는 1705년 1월 어느 날 치수 그는 농민을 위해 가족과 재산을 모두 바친 례에 걸쳐 홍수가 덮쳤다. 호구지책 때문에 97세 대역사 완공…후대 풍요 혜택 공사를 앞두고 아들 간로쿠를 불러 이같이 말 사람입니다." 한다. 에도시대 세습 면장(面長) 가문에 지 나지 않은 낮은 벼슬살이를 했던 그는 조부가 쓰루기산 '⊃'모양 물길 병목현상 실패했던 역사에 뛰어든 것이다. 50 대 중반 태풍만 오면 인명 피해 농지 유실 의 그는 아들에게 산을 옮겨 강줄기를 바꾸겠 산 관통 암벽 뚫고 제방 축조 도전 다는 무모한 꿈을 얘기했다.

탄이 두려웠다. '거북이 목' 산세 ( 쓰루기산 ) 다헤에와 달리 산촌 마을에 가깝다. 험준한 견 인력에 합류해 오사카로 떠났다. 1704 년 누워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또 3 년 뒤 작은 에 깃든 용신을 두려워 않는 아버지가 적이 산세 사이로 형성된 논, 밭을 부쳐 먹는 마을 의 일이었다. 염려됐다. 야헤에는 거북이 머리 앞으로 휘 이 이우강을 중심으로 듬성듬성하니 70 여곳 그는 거기서 8 개월에 걸쳐 토목기술을 상 된 것이다. 정말 용신의 재앙 같았다. 감아 도는 물줄기를 직선화하겠다는 의지였 에 달했다. 이우강은 덴구산에서 발원이 돼 세히 익힌 뒤 번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재정이 그런데도 백발노인의 망치질은 계속됐다. 껏 백성에게 풍요를 가져다주고 있다. 다. 그러자면 목 부분을 절개해야 한다. 머 나카우미(中海)로 흘러드는 20㎞ 길이다. 비약했던 번은 거절했다. 리 부분에 자리잡은 신사의 반대는 불 보듯 그런데 이 강줄기는 히요시마을 쓰루기산 "여기가 야헤에의 집터입니다. 그는 1706 의 나이 97 세였다. 바닷속 강을 파는 것과 에필로그

다운 계곡 하나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수 줄 역할을 했다.

스토우야헤에기념사업회 이시하라 시게루 었다. 높이와 폭 각 12.7m, 길이 29m 에 이 았다.

가슴속엔 장마나 태풍만 왔다 하면 집과 농토 선화한 제방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졌다. 문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다. 순식간에 강물은 불었고 강 하구에 만조 다." 한데 이 '기리도오시'는 치산·치수를 위 까지 겹치면서 히요시마을 일원 제방이 힘없 야마토 겐(인간자연과학연구소 이사·시 다.

에는 이때를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지옥 그는 제방공사를 위해 창고의 쌀을 모두 처

년대 그의 조부 스토우 야혜에 이에마사가 면 을 부수었다. 눈과 비가 와도 망치질을 멈추 황폐화됐었다 . 이때 이에마사는 이우강의 물 요시마을 사람들이 그의 작업을 돕기 시작했 줄기를 바꾸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믿었다 . 다 . 마침 번 관계자도 실태를 파악하고 격려

오사무는 "그의 조부는 마을 회의를 소집해 작공한 지 5년, 그동안 방치됐던 2차 수로 '히요시수로공사'를 청원했다는 기록이 있 공사가 완료됐다.

마을 처녀들이 팔려갔다. 게다가 토목공사를 지원하던 막강한 영주 마츠다이라 나오마사 어느덧 10 여년이 또 흘렀다. 그간 큰 비가

에 이르면 산 암벽에 막혀 '⊃' 모양으로 흘 년 재산을 털어 공사를 시작합니다. 10년이 같은 불가능한 일이 40여년의 망치질 끝에 지난달 23 일 마쓰에서 히요시마을 기리도 러 돌았다. 평상시에는 각 지천의 물을 끌어 걸릴지 30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 이뤄졌다. 가족을 잃고, 재산을 헌납하고, 오시 ( 산 등을 깎아낸 도로나 수로 ) 앞 . 아름 안으며 마을마다 풍부한 농수를 공급하는 젖 었지요 . 마을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공사라고 인생을 바친 대역사였다 . 농민에게 대자연과 이미 등을 돌렸고요. 돈을 주며 공사에 참여 더불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 영이나 낚시 또는 래프팅을 해도 좋을 빼어난 1702 년 8월 이즈모 지방에 태풍이 닥쳤 하라고 해도 저주가 있을 거라고 외면했습니 방에 난 작은 구멍을 손을 넣어 막았다는 네 넷째 자연 경외, 다섯째 사회적 합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치열한 논쟁이 묻힌

4000 채가 유실됐다. 논은 모래와 진흙으로 조부가 뚫은 절개암을 넓히고, 제방을 뚫는

의 몰골'이라고 했다. 마쓰에번은 구휼미를 분, 임금으로 썼다. 그러나 타지 인부들도 제 보냈으나 턱없이 모자랐다. 면장이었던 야혜 방 축조 공사가 아닌 바위를 깨서 수로를 만 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 야헤에는 별 수 없이 그의 이러한 결심은 뿌리가 있었다. 1650 혼자 비계 위에 올라 망치와 끌만으로 화강암 소설 '스토우 야헤에'의 저자 고우에키바 금을 내놓자 공사에 탄력이 붙었다. 그리고

다"며 "1650년 번의 지원을 받은 이에마사 그런데도 야헤에의 망치질은 멈추지 않았 는 3 년간에 걸쳐 토목공사를 시작한다"고 다. 폭 6m, 깊이 1m 는 더 깨내야 대홍수로 부터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다. 모든 농민이 쓰루기산 거북이 목은 이때 1 차 절개가 됐 돌아갔어도 그는 외로이 비계 위에서 돌을 쪼

르는 난공사였다. 이즈모반도 대개 현무암층 한데 비극이 닥쳤다. 시집도 가지 않은 딸 "그는 마을의 호농(豪農)이었습니다.세 이 많으나 쓰루기산은 단단한 화강암이어서 이 지병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사람들은 "인간은 지혜를 이용하여 대자연과 더불어 도가는 아니었어도 지방 말단 공직자로 편하 번의 대규모 지원에도 3 년이나 걸렸다 . 용신의 재앙이라고 다시 수군댔다 . 계속되는 살아가야 한다. 자연을 상대로 나쁜 일을 도 게 생을 마감할 수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의 그러나 기쁨도 잠시, 1654 년 홍수로 직 입방아를 떨치기 위해 62 세에 종교계에 입

(도쿠가와 이에야스 손자) 마저 죽었다. 없어서 마을은 해마다 풍년이 들었다. 아들 야헤에는 조부가 남긴 수로공사 계획서만 은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적당히 하길 권했으 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직접 제방공사 경험을 나 듣지 않았다. 어느 날 아버지를 돕겠다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침 오사카 야마토강 바위를 깨던 아들 간로쿠가 피를 쏟으며 돌연 아들은 정령숭배를 하는 마을 사람들의 지 야헤에가 태어난 곳은 앞서의 시치베에 . 대토목공사가 있는 것을 알고 마쓰에 지방 파 사하고 만다 . 상심한 아내마저 같은 해 몸져

그리고 마침내 1747 년 공사가 완료됐다. 그

해 개발자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 무너졌다. 무엇보다 쓰루기산으로 인해 민운동가)은 야헤에의 집념이 태산을 움직 지난달 26일 오후 관계자들은 취재진을 현대의 토목기술은 42년의 망치질로 극복 명하다. 시간을 두고 특정 강만 우선 개발해 보여주는 개발 철학의 유산이 깃든 곳이다. 물의 흐름이 병목 현상이 되어 빠져 나갈 곳 였다고 했다. 야헤에는 면민이 외면한 가운 기리도오시와 좀 떨어진 한 밭으로 안내했 하던 자연을 단 하루 만에 포클레인을 동원해 생태질서를 관찰하는 케이스 스터디가 필요

축조한 제방의 일부가 토목 유산이 돼 지금까 관이 지배적이다.

야헤에는 102 세까지 장수했다 . 그의 유택 한 결과일지 모른다 . 했던 야헤에. 자연과 맞선 그의 희생은 지금 알 수도,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것"이라고 밝혔다 .

일본 치산·치수 영웅 3 인에게 공통점이 아직 모른다. 일본 운하사례처럼 무용지물이 있다. 첫째 이웃을 위한 개발 정신, 둘째 자 될 수도 있고 반면 치수와 간척 같은 긍정적 기희생, 셋째 개발 이익을 탐하지 않은 것,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덜란드 소년 영웅 한스 브링커의 노년판 같 당시 창조세계의 보전과 같은 생명신학 관점 채 빠르게만 진행되는 4 대강 개발 사업은 개 의 인식은 없었다.

었다. 그 옆으로 둔덕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의 대상이 아니라 생활의 편리나 건설 이익에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1650 년 야헤에의 조부가 번의 지원을 받아 따라 언제든지 주무를 수 있다는 정복적 자연

지 남아 있었다. 마쓰에시역사자료관 정비실 그러나 크리스천에게 땅은 생명을 잉태하 관계자에 따르면 "현존하는 제방 유적은 폭 는 '어머니'다. 따라서 이를 학대하는 행위 10m, 높이 3m, 길이 50m 로 작은 돌로 쌓은 는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 아마도 지구 온난화로 지칭되는 재앙은 도전에 대한 당연

과 집터 등은 개착지 2 ~ 3 ㎞ 범위 내에 위 우리의 4 대강 개발 사업 판단 여부는 정확 치해 유적지로서 후대에게 산교육장으로 활 히 얘기하자면 전문가들의 몫이다. 지천도 용되고 있다. 때론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발 아닌 모강(母江)을 다스리는 데 따른 환경 아들 헤이자에몽도 급사했다. 대가 끊어지게 의하고 때론 주민과 갈등도 하며 하늘을 원망 공학적 결과, 사회적 가치를 일반인은 쉽게

> 우리는 새만금 간척지 개발 19년을 통해 알 수 있듯 개발론자와 반대론자가 밀고 당 기며 선순환적 결과를 낳았다. 사회적 합의 가 녹아들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 신교의 판단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분

다. 밭에 한국산 배추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 무너뜨릴 수 있다. 현대인에게 자연은 경외 하다. 성서적 관점에서 볼 때 생태계 전체가

jhjeon@kmib.co.kr

취재 지원 :

일본 재단법인 인간자연과학연구소







①야헤에가 42 년간 망치와 끌로 쪼아낸 절개암 사이로 이 시게루 회장.③옛 이우강터의 제방 일부.④신사⑤애헤에

## 日 인간자연과학연구소 , 국민일보 조민제 사장에 감사장



국민일보 조민제(사진 가운데) 대표이 사 사장이 일본 인간자연과학연구소 고마 츠 아키오(66·왼쪽) 이사장으로부터 자 연개발 보도와 관련해 감사장을 받았다.

고마츠 이사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 일보빌딩 11층에서 열린 국민가족 수요 예배에 참석해 조민제 사장에게 "국민일 보 섹션 '이웃'이 지난 1월 일본 이즈 모 반도의 치산·치수 영웅 3인의 업적

에 대해 '하나님과 자연'이라는 관점에서 보도해 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 다"며 감사장을 수여했다. 수여식에는 인간자연과학연구소 김현철 (78·전 방 송위원회 사무총장 ) 고문이 배석했다.

지난 1월 6일, 13일, 20일 등 3회에 걸쳐 보도된 기획물 '하나님과 자연' 은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개발 문제에 대해 창조질서 시각으로 해답을 얻고 자 일본 시마네현(이즈모)에서 취재가 이뤄졌으며, 인간자연과학연구소가 취 재를 지원했다. 일본 치산·치수 영웅 오카지 시치베에 (1621 ~ 1689) 등 3 인 은 운하 , 간척 등의 개발 사업을 국민의 편에서 추진했다 . 본보는 이들이 개발 한 300 여년 후 자연환경의 장단점을 집중 보도했다.

조국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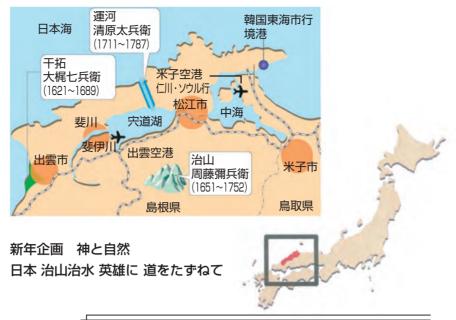


周藤弥兵衛. indd 1-2

# 周藤彌兵衛

4大江開発事業に対して8つの教団協議体である韓国キリスト教教会協議会(NCCK)は事業中断を促した。 その一方で、保守志向の韓国キリスト教総連合会は「長引く水問題の解決と地域活性化」を理由に支持する 立場を明らかにした。これについて国民日報「イウッ(隣り)」は 17 - 18世紀の日本における治山、治水 の英雄、3人の開発事例を通じてケーススタディ (Case study) をしてみた。

人力だけで大自然の流れを変えた事業は、200 - 300年が過ぎた今も生態の循環を繰り返して、その功績 を後代が抱きながら暮らしている。



①全財産をかけ干拓作業 大梶七兵衛 ⊕命をかけて8kmの運河をつくる 清原太兵衛 ⑤ 42 年間金づち一つで川の流れをかえる 周藤彌兵衛

## 人間の知恵は大自然といっしょに生きて行くために使う



出雲(日本)=記事 全正熙記者、 写真 尹汝弘専任記者

「人間は知恵を使って大自然といっしょに生 ことができたんです。ところが彼の胸の中に 農地が2.5倍も増えたと喜んでいた農民は、 倉の米全てを処分して人夫の給金に き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自然を相手に悪は、、梅雨や台風が来たといえば家と農地が押で神の災いと言って動搖した。以後も3回に 97歳の偉大な事業が完工…後世に豊穣の恩恵

洪水被害から農民を救った日本松江藩の官 ると考えたでしょう。 彼は農民のために家 川家康の孫)までもが死んだ。 吏。彼は 1705 年 1 月のある日、治水工事を 族と財産をすべて捧げた人です」 控えて、息子勘六を呼んでこのように言う。 位の彼は、祖父が失敗した歴史に跳び込んだ 台風でも来れば人命被害と農地流失、 川を変える」という無謀な夢を話した。

形をしていた剣山(つるぎ山)にまつられて しい山の間につくられた田畑で食べる村が、 費がかさんでいた藩は断った。 考えた。それには、首部分を切開しなければ 長さ 20Km の川だ。 ならない。頭部分に鎮座する神社の反対は、 この川は、日吉村の剣山の岩壁に当たり 事でした。村人は『途方もない工事』と、す (監注:日吉切通しの幅は上流部で約27.3 m、 エピローグ 火を見るよりも明らかだった。

先月23日に訪れた松江市の日吉切通し(山 農業用水を供給する乳腺の役目をした。 などを切った道路や水路)には、美しい谷が 1702年8月、出雲地方に台風が近づいた。 山本謙氏(人間自然科学研究所理事・市民 に暮ら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たのだ。堤防

どんな姿勢を持つべきかを示している、開発 原因だった。数百人が死んで、家 4000 軒が 新川の堤防を造る工事だった。

彰会の石原茂会長(82)の話。

息子は精霊崇拝をする村の人々の指弾(つ 彌兵衛の生まれた所は、前回掲載した大梶 彼はそこで 8ヶ月にわたって土木技術を 災いの様だった。

「□」模様で迂回して流れる。普段は、いろ ぐに背を向けたんです。お金をあげて『工事 下流部で約 21.8 m) いろなところの水を集めて、村ごとに豊かな に参加しなさい』と言っても、『祟りがある』 家族を失い、財産を捧げ、人生を捧げた大

目の前に広がっていた。水泳や釣り、またはあっという間に川の水かさは増え、河口に押運動家)は、彌兵衛の執念が泰山を動かしたの小さな穴に指を入れて洪水を防いだといれる利益を望まないこと、四番目に自然に対りる。その一方、治水は干拓のような肯定 リフティングをしても良い、素晴らしい谷 し寄せる満潮まで重なり、日吉村周辺の堤防 と言った。彌兵衛は村人がそっぽを向いた中 う、オランダの少年英雄ハンスブリンコの老 する敬意、五番目に社会的合意だ。当時、創 的効果をもたらすこともできる。 が崩れた。何よりも水の流れが、瓶の首のよで、他の地方の人20人余りと一緒に工事を 年版のようだ。 この切通しは、治山治水のために開発者が うな剣山に当たり、抜ける所を失ったことが 始めた。祖父が切った岩をさらに切り広げ、 先月 26 日午後、関係者たちは取材陣を、 識はなかった。

とだけが生き延びる方法だと確信した。

小説「周藤彌兵衛」の著者、交易場修氏はした。 て土木工事を始めた」と話した。

この時、剣山の亀の首の、第1次切開が ぽつんと足場の上で岩を壊した。 行われた。高さと幅はそれぞれ 12.7m、長さ そして悲劇がおこった。結婚もしてない娘 あっても3年もかかった。

しかし喜びもつかの間、1654年の洪水に、 からだ。 「彼は村の豪農でした。権力者ではないが、 直線化した堤防はあっという間に崩れた。 b方の末端の公職者として楽に一生を終える 12.7m の狭い幅の切通しでは力不足だった。 住民は参加、藩は支援拒絶、 い事を企てて害になればそれが災いだ」
し流される農民の現実を、なんとしても克服 わたって洪水が襲った。当座の暮らしにも

立った。1704年の事だった。

かかるか、30年かかるか、誰も分からない た。 とそっぽを向きました」

じだった。彌兵衛はこの時を「希望の光が見」金を払った。しかしまた人夫たちも、堤防築 えない地獄の様 | と言った。松江藩は地平し 造工事のみで、岩を壊して水路を造る事には 米 (救援米) を送ったが、全く足りなかった。参加しなかった。竜神の祟りが恐ろしかった 下郡だった彌兵衛はこの大洪水を経験し、どからだ。彌兵衛は仕方なく一人で岩に上がっ んなことがあっても治山治水をすると決心すで、槌とのみだけで岩を壊した。雪や雨が降っ ても、一人作業を止めなかった。そうして3 彼のこのような決心には根拠があった。年、彌兵衛の真心に感服した日吉の村人たち 1650年代、彼の祖父周藤彌兵衛家正が下郡 が彼の作業を助け始めた。また、藩の関係者 をした時も4回も洪水がおこり、村が荒廃し も実態を把握して激励金を出したため、工事 た。この時、家正は意宇川の流れを変えるこ に弾みがついた。そして着工してから5年、 その間放置されていた第2次水路工事が完了

「彼の祖父は村会議を召集して『日吉水路工 それでも彌兵衛の槌音は止まらなかった。 事』を請願したという記録がある」と、「1650 幅 6m、深さ 1m の拡張では、もっと掘らな 年、藩の支援を受けた家正は3年間にわたっ いと大洪水を十分に防げるとは判断できな かった。すべての農民が帰っても、彼は一人

29m に至る難工事だった。剣山は硬い花崗 が持病で死んでしまった。人々は竜神の災い 岩(花崗閃緑岩)なので、藩の大規模支援が だとまたうわさした。62歳で仏門に入った のも、そんなうわさを無くしたいという理由

は父の健康のために程々にするよう勧めたになって今も残っていた。松江市歴史資料るという征服的自然観が支配的だ。 江戸時代、世襲の下郡の家柄に過ぎない低い 川筋は剣山に沿って瓶の首「つ」の形を描く、 しようと心に決めた。ちょうど大阪の大和川 吐いて死んでしまう。傷心の妻も同じ年に んでいるもの」と明らかにした。 で大きな土木工事があることを知り、松江地 寝込んで、再び起き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のだ。50 代半ばの彼は息子に、「山を移して 山を貫き岸壁を切り開いて、堤防築造に挑戦 方から派遣された人夫を引率して大阪に旅 また 3 年後、幼い息子平佐衛門も急死した。 跡地などは、切通しから 2 - 3km の範囲内 たり前の結果かも知れない。

まはじき)が恐ろしかった。亀の首のような 七兵衛、清原太兵衛とは違い山村に近い。険 詳しく習った後、藩に支援を要請したが、出 それなのに白髪の老人の槌音は続いた。そ うな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し、時には住民と 全知全能でない我々が母なる河を治めること いる竜神を畏れない父を心配した。彌兵衛は 意字川を中心に点々と 70 箇所余りあった。 「ここが彌兵衛の家の跡地です。彼は 1706 歳になっていた。海の中に川を掘るような不 かい合った彼の犠牲は、今に至るまで民に豊 には簡単には分からないし、判断することも 亀の頭の前で蛇行する川を、直線化しようと 意字川は天狗山を源流として中海に流れ込む 年、財産をはたいて工事を始めます。10年 可能な事が、40余年の槌打ちの末に完成し 饒をもたらしてくれている。

切通しからちょっと離れた、ある畑に案内



いた。その横の一つの小さな丘が目を引い 使って崩すことができる。現代人にとって自 をおいて特定の港湾をまず開発して、生態系 周藤彌兵衛(1651-1752)。42年の間、槌 したいという意志がありました。のみと槌で 困ったため村の娘たちが売られた。それに土 いつのまにか、また10余年が経った。そ た。1650年、彌兵衛の祖父が松江藩の支援 然は敬意の対象ではなく、生活の利便性や建 を観察するケーススタディが必要だ。聖書的 とのみだけで山を切開して川の流れを変え、 山を切り開くということを、当時、誰ができ 本工事を支援した力強い領主、松平直政(徳 の間大雨がなく、村は毎年豊作だった。息子 をもらって築造した堤防の一部が、土木遺産 設利益のために、いつでも変えることができ 観点で見る時、生態系全体が救援の対象だか

> 彌兵衛は祖父が残した水路工事計画書だけが、父は聞かなかった。ある日、父を助けるが館整備室関係者は、「現存する堤防遺跡は幅しかし、クリスチャンにとって土地は生命 では足りないと思い、直接、堤防工事を経験 つもりで岩を壊していた息子勘六が突然血を 10m、高さ3m、長さ50mで、小さな石を積 を育む「母」だ。したがって、これを虐待す る行為は創造秩序に対する挑戦だ。地球温暖 彌兵衛は102歳まで長生きした。彼の家の 化に代表される災いは、この挑戦に対する当

代が途絶えてしまったのだ。 本当に竜神の に位置し、遺跡地として後代の生きた教育の 私たちの4大江開発事業の可否の判断は、 場として活用されている。時にはモーゼのよ 正確さを求めるならば専門家たちの役割だ。 して遂に 1747 年、工事が完了した。彼は 97 の葛藤もあり、天を仰いだ彌兵衛。自然と向 による環境工学的結果、社会的価値は一般人 できないからだ.

セマングム干拓地開発 19年を通じて分か るように、開発論者と反対論者が押したり引 いたりして、先進的な循環ができる結果を生 日本の治山治水の英雄 3 人には共通点が んだ。社会的合意がついたということだ。と いなる歴史だった。農民が大自然と共に豊かある。第一に隣人のための開発精神、二番目ころがその最終的な結果はまだ分からない。 に自己犠牲、三番目に開発によってもたらさ 日本の運河開発事例のように無用の長物にな

造世界の保全のような、生命神学の観点の認 このような観点で見る時、熾烈な論争にも かかわらず、そのまま速いスピードで進む4 現代の土木技術は 42年の槌打ちで乗り越 大江開発事業は、プロテスタントの判断のよ 哲学の遺産が込められた所だ。周藤彌兵衛顕 失われた。田は砂と泥で覆われた。翌年も同 彼は工事のために倉の米をみな処分し、賃 した。 畑に韓国産白菜が生き生きと育って えた自然を、たった一日で、ショベルカーを うに議論の余地があることは明らかだ。時間



つけた。今は意宇川が流れている。②周藤彌兵衛顕彰会石 原茂会長。③昔の意宇川堤防の一部。④神魂神社。⑤彌兵 衛墓地。

2011年1月20日木曜日

取材支援: 日本財団法人人間自然科学研究所 翻訳 金有辰

監修 財団法人人間自然科学研究所

## (財)人間自然科学研究所、国民日報趙旻濟社長に感謝状

jhjeon@kmib.co.kr



国民日報 趙旻濟 (チョミンジェ、写真中央) 代表取締役社長が、日本人間自然科学研究 所小松昭夫(66・左側) 理事長から、自然 開発報道に関して感謝状を受けた。

小松理事長は 16 日ソウル・汝矣島の国民 日報ビル 11 階で開かれた "国民家族"の 水曜礼拝に参加して、趙旻濟社長に国民日 報セクション・イウッ (隣り) が去る 1月、 日本島根半島の治山治水の英雄三人の業績

に対して、「『神と自然』という観点で報道してくださったことを光栄に思う」と、 感謝状を授与した。 授与式には人間自然科研究所の金顯哲(キムヒョンチョル、 78・前放送委員会企画室長) 顧問が同席した。

去る 1月6日,13日,20日の3回にわたって報道された企画 '神と自然'は、 論議を起こしている 4 大河川開発問題に対して「創造」「秩序」「視覚」で解答を 求めようと日本島根県(出雲)で取材が行われ、人間自然科学研究所が取材を支援 した。日本治山治水の英雄3人は運河、干拓などの開発事業を国民として推進した。 この報道は彼らによる開発から300年あまりを経て、自然環境に及ぼした長所短 所を集中報道した。

チョ・グッヒョン記者



周藤弥兵衛. indd 3-4